

##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

Q) 저는 두 달 전에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했는데 여기에서는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저는 영영 친구를 사귄 수가 없나요? 혼자 다니기가 정말 지겹고 외로워요.

A) 민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노트에도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때도 십대 때였죠. 저는 따뜻한 격려와 애정에 굶주렸고, 고통스럽게도 사교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줍음을 잘 탔고, 내성적이었으며 누군가에게 다가가 나를 소개하는 일이 지독히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서 고립되어 말도 못하고 어색하고 외롭게 서 있곤 했습니다. 그 시절은 슬픈 시기였고, 낙심, 고독, 불안, 외로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세상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십대에는 환경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고독해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외로움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민지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민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단다. 나는 아무도 없이 사십일 동안을 광야에서 보냈지. 그 많은 시간이 나에게는 참으로 유익했단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즐겁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사탄은 지독한 시험으로 공격해오지. 사탄은 너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겠지? 그러나 나와 내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된단다. 절대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의 존재를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적 교제를 가짐으로써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민지의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혹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매사가 짜증스럽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난 바보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나는 못생겼어” “다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난 절대로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야” “너무 외로워 죽겠어”라는 생각을 조심하세요. 민지가 자신에게 친구가 될 결심을 하세요. 스스로를 좋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얻는 것보다 친구가 되는 것에 더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민지가 다른 사람들이 민지를 좋아하도록 애를 쓰거나 다른 사람들을 민지의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보다는 먼저 민지가 친구가 되어주는데 힘을 쏟으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 세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둘째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세요. 셋째로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외로울 때 염려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 민지의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와의 우정이 깨지거나 시들해질 때 혹은 전학이나 이별로 인해 헤어질 때도 예수님과의 우정이 민지를 도와줄 겁니다.

민지가 주님과 교제를 경험하면 할수록 좀더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외로운 사람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하고 의미 있는 교제를 날마다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지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민지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외로운 사람의 친구이십니다.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